

한-중 수교 15년...광주·전남 현실은

# 중국관광객 유치 성과 미미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전무

### 관광객 증대·무역구조 개선 서둘러야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은 아직 귀에 설다. 대 중국 무역도 단순한 원자재 수출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중 수교 15주년 성과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이다.

연도	광주	전남
2003	수출 179,049 수입 151,433	2,999,606 550,390
2004	수출 211,629 수입 269,203	4,210,646 957,175
2005	수출 289,805 수입 344,167	5,389,712 1,294,382
2006	수출 443,243 수입 431,618	5,897,999 1,281,670

(자료:광주·전남 무역협회)

품 개발 등 중국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도 과제다.

◇무역구조 개선도 시급=한·중 수교와 함께 광주·전남대 대 중국 무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전남도의 지난해 대 중국 수출액 58억 9천799만 9천 달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품목은 석유화학·유류·철강공업 원료 등 원자재로 분류됐다. 중국에서 철강 금속류와 광산물 등을 수입해 가공을 거쳐 다시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부가가치는 높지 않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의 급변하는 무역정책 등에 따라 수출입 품목에 대한 규제 및 가격 변동이 예견되므로 수출선 다변화 및 무역구조 고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전남 서남권 교통망 확충 시급 전남도 국고 확보 전력

오는 11월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 서남권의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악신도시를 비롯해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공동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서남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남권 생산기반인 대불산단과 남악신도시 사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영산강 하구둑 국도 2호선인 무안 삼향~청호~영암 삼호 15.2km 구간은 전체 예산 3천721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828억원을 투입해 도로

노반 흙쌓기와 영산강 교량기초 및 상부공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 목포 북항에서 교하도로 연결되는 목포 대교 4.13km 구간은 현재 전체 3천여억원의 예산 가운데 789억원이 투자돼 해상교량 우물통 거치와 육상교량 교각설치를 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이다.

오는 11월 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안 망운~현경간 무안읍 우회도로를 지난해 완공한 데 이어 무안 청계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지방도 815호선 8.1km를 올해 말쯤 내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과 전남 내륙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안~광주 고속도로 문평IC에서 국도 1호선 고막원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825호선 4.5km에 총 1천68억원을 투자해 4차로로 확장한다.

J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국도 77호선인 해남 문내~화원 10.7km를 4차로로 이미 개통한 데 이어 국지도 49호선 화원~삼포 11.79km에 1천416억 원을 투입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와 함께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진입도로로 사용될 지방도 810호선 2.78km도 4차로로 확장 계획이다. 또 서남권 핵심 SOC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압해~압대 새천년 대교 건설과 무안국제공항과 해남 화원을 잇는 압해~화원 도로의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내년 중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민주신당 지도부 총출동 광주서 최고위원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는 23일 창당 후 처음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순회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호남민심 구애에 나섰다. 정면 왼쪽부터 이미경 최고위원, 김효석 원내대표, 박준영 전남지사, 오충일 대표, 박광태 광주시장, 정균환·김상희 최고위원, 추미에 대한 예비후보.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정신 계승 대선서 꼭 승리”

### 오충일 대표 “민주당과 통합의 문은 닫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창당 후 처음으로 오충일 대표 등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5·18 국립묘지 참배와 5·18 부상자 위문, 시민사회 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호남민심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이날 광주 방문에는 오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정균환 이미경 김상희 최고위원, 김태홍 양형일 김동철 강기정 지병문 서갑원 채일병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여했고 대선 후보 가운데는 추미에 전 의원이 동행했다.

오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광주 하늘에 와닿으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광주 묘역을 찾아가는 동안 부끄럽고 슬프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민주세력이 어떻게 하든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5·18 영령 앞에서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대선에서 보답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박광태 시장은 “143명의 의원이 전국 대의표를 갖고 고투 참여했지만 할 일 많다”며 ▲당의 화합과 단합에 힘써줄

것 ▲신뢰받는 정당상 확립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흠집내기가 아닌 정책대결을 유도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박준영 지사도 “80년 광주 5월항쟁 기간동안 시민들은 단 한 사람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대통합을 이룬 우리도 이런 각오로 좋은 나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오 대표는 민주당과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과의) 통합의 문은 닫혔다”고 밝혀 불관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수구세력 대비되는 후보 낼 것 본선 들어가면 1대1 구도 형성”

### 정균환 민주신당 최고위원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전남 지역순회 최고위원회의 참석차 23일 광주를 방문한 정균환 최고위원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17대 대선과 관련 “수구냉전세력에 대비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확정되고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도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 전망은...”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지지율면에서 1년 이상 뒤쳐져 있었지만 국민들은 결국 그들을 선택했

다. 냉전수구세력에게 권력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도 북한과 종전·평화협정을 거론할 정도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더 더욱 과거로 회귀하려는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의 실적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잘 할 일도 없이 반사이익을 얻어왔다. 지난 1년여동안 한나라당 후보들은 일방적으로 혼자 뛰었고 그 분위기가 아직 잔존해 있다. 본경선에 들어서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돌아오고 50대 50

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회의원 수만을 기준으로 일방적 지지를 하는 쪽이 있지만 내용을 봐야 한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세력과 제정파가 모든 득권권을 버리고 제3지대서 하나가 된 것이다. 시민세력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핵심세력이 주도적으로 당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 절대 ‘도로 우리당’이 아니다.

“향후 대선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국민들은 양당 체제와 1대 1 구도를 선호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합을 추진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1대 1 구도로 가면서 일부 군소정당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day.co.kr

무안점 1588-8499 | 080-222-0100